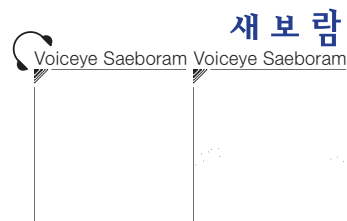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새 보 란

Saeboram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7년 4월 284호

(02)796-4280 www.kappd.or.kr



뉴스

“복지는 정치다”
대선연대 공약 제시

▶ 3P



특집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 12P



국제

생각있는 컴퓨터로
전신마비 장애인 응답

▶ 15P



인물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을 만나다

▶ 19P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세계 6대륙 19개국 톱 선수들 출사표

홍석만·김규대 등 국내 선수 22명 출전

올해 25번째를 맞는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2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6대륙 19개국 톱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지난해 리우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르셀 허그와 동메달리스트인 한국의 김규대, 전년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자 타나 라왓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신기록 보유자 홍석만과 아시아 신기록 보유자인 호키노우에 코타, 지난 2월 도쿄 마라톤대회 1위 와타나베 소 등도 월계관을 쓸 후보로 꼽힌다. 이 외에도 세계 랭킹 상위권 선

수들의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예상된다.

국내 선수는 김규대, 홍석만 이외에도 이봉준, 정동호, 이윤오, 홍수화, 이기학, 유현대, 윤현재, 강창균이 풀마라톤에 출

전하며 최재웅, 정종대, 김수민, 김준용, 정상일, 김정범, 김현구, 유병훈, 박윤재, 윤윤호, 이우찬, 정재석이 하프마라톤에 출전한다. 이중 6명이 신인으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지 기대

감이 쏠리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지속적으로 신인 선수 출전을 장려하며 선수 육성과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국

제대회로서의 역할을 탄탄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며 이 자리에는 대회 참가 선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조직위원회는 세계 톱클래스 선수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 훈련코스 안내, 보장구 수리 지원, 지역정보 안내, 통역자원봉사자 연계 등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안전 대책을 수립해 준비하고 있다.

〈12면에 계속〉



▲ 지난해 마라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출발 모습.

지장협,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오는 7월 개관... 지상 2층 규모로 조성



▲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조감도.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 법인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선정됐다.

칠곡군은 지난 4월 7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관장은 제안 내용에 의해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영식 협회장으로 내정됐다. 김영식 협회장은 경상북도지사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국회

부의장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장애인성폭력대책협의회 위원,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이사로 위촉된 바 있다.

지장협은 1997년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한 이래 2017년 현재 전국 22개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지장협 수탁 복지관들은 장애인당사자 관장을 비롯한 장애 전문가들이 중심에 서고 지역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장애인복지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며 발전해왔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복지관을 수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교육존, 치료존, 다목적존, 재활존, 강당,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7월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칠곡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한향숙 위원장을 비롯한 김학희, 장세학 위원은 최근 복지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장협, 전국 17개 시·도 협회 조직 구성 완비

울산지역 지체장애인 단체 통합... 주경철 협회장 임명



▲ 김광환 중앙회장이 주경철 협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울산지역의 독립 법인체로 독자적인 활동을 해온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중앙회장 김광환)의 구성원으로

합류했다. 지장협은 4월 6일 개최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주경철 협회장을 임명했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울산지부로 창립되어 지장협 중앙회와 상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

나 지역 내 회원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2009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울산협회'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어 왔다.

단체 분립은 결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전국단위 사업이 조직간 갈등 속에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장협은 울산지역의 지체장애인 단체 통합을 위해 힘써 왔으며 동일한 지체장애인 조직으로서 지나간 서로의 역사를 인정하고 향후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 따라 공감대를 넓혀왔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도 전국적인 활동의 한계성 및 대승적 관점에서 합류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마침내 단체의 통합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1998년 8월 중구지회, 남구지회, 북구지회 설립 후 현재 5개 지역의 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울산협회 산하 복지 시설로는 상계장애인보호작업장,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등 5개 시설을 수탁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지장협은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의 합류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협회 조직 구성을 완비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기관 업무 등 국가 위임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었다.

지장협 이종성 사무총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및 권익 향상에 기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한다.

이종성 총장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성 총장은 22년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관련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에 매진해 왔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체육과 과장, 서울시립북

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에 힘써 왔다.

수훈은 오는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성 사무총장 ▶



지장협-대한약사회, 장애인 건강증진 MOU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 스타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3월 6일 지장협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장애인 건강증진을 통한 복지사회구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으로 '지역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시작한다.

협약에 따라 대한약사회 측은 '지역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장협 산하 17개 시·도협회와 22개 장애인

복지관을 순회하며 복약지도와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건강권은 인권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건강 네트워크의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장협이 복지 실천의 장을 제공하고 대한약사회가 나눔을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며 "앞으로 나눔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정책 들여다보기

“복지는 정치다”

대선장애인연대, 제19대 대선공약 요구 제시

대선연대, 공약 선포식 개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범장애계가 참여한 ‘2017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각 당 대선후보 측에 공약안을 전달했다.

대선연대는 4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복지는 정치다’라는 모토로 공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후보들이 대선연대의 공약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촉구했다.

대선연대는 지난 2월 13일 30여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장애계의 단일한 뜻이 담긴 공약요구안을 개발하고 체계화해왔다. 대선연대 공약개발위원회에서는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 장애유형 공통 사안, 장애인권, 소수장애인 등 장애인 현안을 우선 고려해 공약선정 기준

을 정하고 장애계 대선공약요구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약 선포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관계자는 장애계 공약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공통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선연대는 공약 선포식 이후 자리에 남아 있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관계자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공약 15가지

대선연대가 요구하는 공약은 4개 영역의 12개 분야로 구분되며 총 15가지다. 영역별로는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 인권 향상 및 권익증진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으로 크게 나뉜다.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GDP 2%) 확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은 0.49%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장애인 복지 지출인

| 영역 | 분야 | 공약 |
|-----------------|----------|------------------------------------|
|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 | 예산 | 1-1.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GDP 2%) 확보 |
| | 소득보장(고용) | 2-1.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
| | | 2-2. 중증장애인 우선 고용정책 수립 |
| | | 2-3.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재난안전 | 3-1. 장애인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
| | 주거 | 4-1. 주거 공급 확대 등 주거권 보장 |
| | 교육 | 5-1. 특수교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
| | | 5-2. 장애친화적 장애인 전용 연수원 (DIDC) 건립 |
| | 이동 | 6-1. 광역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
| | 복지서비스 | 7-1.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 | 정보접근성 | 8-1.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
| 장애인 인권향상 및 권익증진 | 인권 보장 | 9-1. 장애인 인권 및 권리 보장 |
| | 의사소통 | 10-1.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체계 구축 |
| | 여성장애인 | 11-1. 젠더 관점의 여성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 국가장애인위원회 | 12-1. 대통령산하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 2017 대선장애인연대 요구 공약(안)

2.19%에 비교하면 약 22.4%에 불과하다. 이에 OECD 최하위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의 장애인 복지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현재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 현장에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이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임금 보전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선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에서 임금을 뺀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2014년 장애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23.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37.6만원)의 51%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8%로 전체 국민 62.6%의 1/3수준이다. 대선연대는 현재 장애인 연금제도

가 시행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급여 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소득 획득 능력이 고려된 대상이어야 하지만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으로 대상을 결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아일랜드, 덴마크,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소득 획득 능력, 직업 능력, 노동 능력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노동활동의 제약 정도와 소득 획득 능력을 고려한 대상자 선별 체계를 도입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안전 관리 전담부서 설치= 지난해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및 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정부의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안전 관리정책’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종합적 장애인 재난안전 관리 대책이 구축돼 있지 않음은 물론 이를 위한 국민안전처 내 장애인 안전 전담 부서조차 부재하다. 따라서 분야별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담당할 국민안전처 내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주거 공급 확대 등 주거권 보장= 낮은 소득, 편의시설 부재, 임대인의 차별 등으로 삼중고의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 장애인에게 주거보장은 지역 사회 자립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주거정책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장애인 주거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광역 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자체 매칭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 제3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목적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하지만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향상 및 권익증진

◇장애인 인권 및 권리 보장= 최근 4년 새 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한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역사를 마감하고 진정한 사회참여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보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 정의를 도입하고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전면 개선하며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개선 제안

“성년후견제, 신탁제도 연계해 보완하자”



▲ ‘성년후견 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해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월 16일 상담소 강당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

스)는 이 같이 주장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후견인이 된

가족이나 친척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재산을 빼앗거나 탕진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인구 변호사는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제도와 유언제도

등을 통해 요보호자의 복지를 위한 재산 승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탁제도 연계를 제안했다.

신탁제도란 신뢰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6년 복지형 신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신탁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재산관리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장애인 특

별부양 신탁’ 제도가 있다. 부모가 재산 관리가 어려운 자녀를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할 시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중도 인출을 할 경우 과세가 되기 때문에 피후견인이 긴급한 상황에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배인구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신탁은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후견 기능을 수행한다”며 “신탁을 성년후견제도와 연결할 수 있다면 더욱 피후견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실무자들 ‘장애이해교육’ 받아 “장애 특성 고려한 전문 업무 펼칠 것”



▲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이 장애이해교육을 받았다.

장애인단체 실무자 100여명이 장애이해교육을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2월 청각장애 교육에 이어 3월에는 시각장애와 발달장애 교육을 실시했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교육은 각각 3월 7일, 13일 진행됐다.

먼저 시각장애 교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이 맡았다. 김 연구원은 시각장애의 정의를 설명하고 현황 및 실태를 전달했다. 이어서 시각장

애인 안내법을 설명한 후 보행 안내 실습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13일 진행된 발달장애 교육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정책실장이 맡았다. 송 실장은 발달장애의 정의와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법 등을 설명하며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실무자들은 “실무에 적용하기 좋은 교육이었다” “다른 장애유형 교육도 이어지길 바란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성명서

장애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LPG가격 인상과 LPG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미세먼지 잡겠다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장애인 이동권을 잡는 LPG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지난해 7월 시작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가 이달 말 보고되고 이를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제도개선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수송용 연료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지만 여타의 수송용 에너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LPG의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LPG차량 연료 사용에 대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대체하는 최소한의 복지정책이었다. 그럼에도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비는 100:86:53이며, OECD의 평균 가격비는 100:89:48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LPG 지수는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더 높고, 경유 지수는 3%포인트 낮은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보면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은 각각 124만대, 275만대가 증가했으나 LPG차량은 2015년 7만 9000대, 지난해는 9만대가 줄었으며 올해 2

월에는 벌써 1만대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감소폭이 큰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등 친환경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LPG 가격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장애계는 물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

게다가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LPG 차량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손해보험사들은 최대 11% 인상하였다가 금융감독원의 보험료 할증 중단 권고로 인해 다시 보험료를 내린 일이 있다. 이렇듯 수많은 장애인들이 열악한 이동권 환경 속에서 이제

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이번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를 통한 에너지세제개편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세먼지 대신 장애인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야 할 것이며, 손해보험사 또한 LPG보험 인상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 4.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멀기만 한 장애인 자립의 꿈... 이뤄질까?



▲ 장애인단체들과 김병욱 의원이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했다.

발달장애 1급인 A씨는 6년 차 직장인이다. 주 5일 출근하고 하루 8시간씩 쇼피백 손잡이 끈을 단다. 하지만 그의 월급은 17만원, 시급으로는 천원 수준이다. 그런데 불법이 아니다. A씨가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도 최저임

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개 장애인단체와 김병욱 의원은 4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

최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러나 즉각적인 폐지는 자칫 기존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보완조치를 마련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보완조치로 변 교수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 시설 운영 ▲근로자 임금 지원 ▲사업장 인력 지원 ▲매출 신장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은 “정부와 전문가들은 장애인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 장애인의 노동을 대하는 사회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애인의 노동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봤기 때문에 최저임금 예외 규정이 추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결과 위주의 평가방식을 똑같이 최종증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여유분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 자금을 중증장애인 고용과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안내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불가)

※ 8월말까지 계도기간(표지교체 가능), 이후 9월부터 기존 표지사용 차량은 과태료 부과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전국 연두순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대행기관 책무 강조



▲ 김광환 중앙회장이 경남지장협 순시에서 임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연두순시에 나섰다.

이번 순시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안을 파악하고 2017년 사업 계획을 점검해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2월 22일 전북과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충북, 서울, 강원, 경기, 전남, 광주, 충남, 세종, 경남, 부산,



▲ 김광환 중앙회장이 3월 8일 충남지장협 순시를 진행했다.

경남, 경북지역을 순서대로 방문해 지역 협회와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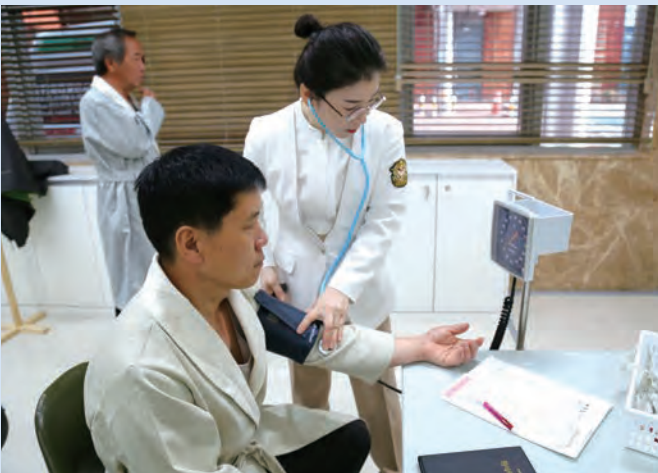
김광환 중앙회장은 순시에서 지역 장애인 지도자들에게 “지역의 장애인 관련 현안을 파악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며 장애인복지 발전을 선도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역 지회장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현판

을 전달하며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광환 중앙회장은 4월에도 연두순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 지켜요” 경북지장협-안동의료원 의료봉사 수행



▲ 장애인이 안동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경북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료봉사가 펼쳐졌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이하 경북지장협)와 안동의료원은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11일간 장애인 130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수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건강검진은 기초문진부터 골밀도검사, 심장기능검사, 흉부질환검사, 정밀 CT검사를 포함한 100여 가지 항목으로 실시됐으며 건강검진

전문팀이 질병 진단을 수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를 주최한 경북지장협은 앞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봉사사업’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도내 공공보건사업에 협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 및 수술 지원 정보를 수집·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안동의료원은 2016년 12월에 개소한 아트갤러리 검진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 의료봉사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종로구지회 창립 30주년, 더해봄 창립 20주년 기념

“종로 행복더하기 바자회” 개최

종로구 지체장애인 권익 운동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3월 17일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이하 종로구지회)와 종로구장애인근로사업장 더해봄(이하 더해봄)은 공동으로 기념식을 열고 ‘종로 행복더하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종로구지회가 지역에서 지회를 결성하고 장애인 권익 운동을 시작한 지 30주년이 된 해다. 또 이와 함께 길을 걸어온 더해봄은 장애인 근로자

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한지 20년을 맞이했다.

파티움성균관(유림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두 기관은 함께 축하하며 지역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했다.

종로구지회 이광규 지회장은 “바자회 수익금 일부를 소외 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작은 정성을 알알이 모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해봄 정연숙 원장은 “앞으

로도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따뜻한 복지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장협 손영호 협회장과 25개구 지회장, 지장협 수도권 직업재활시설장, 김영종 구청장, 종로구 관내 시의원, 구의원, 기관장 및 단체장 등 내빈을 포함해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 종로구지회와 더해봄이 함께 창립 30·20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역량 강화 통해 상담 서비스 질 향상



▲ 경기도 장애인민원상담센터가 2017년도 상반기 민원상담센터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 장애인들의 다양한 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다.

지난 3월 22일 경기도 장애인

민원상담센터(이하 민원상담센터)는 2017년도 상반기 민원상담센터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했다.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 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도내 31개 시·군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센터 실무자 54명이 참석했

다. 교육에 앞서 김기호 센터장이 2017년 한 해를 이끌어갈 7개 권역장과 상담실무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기호 센터장은 실무자들에게 “이번 교육을 통해 상담 실무자들이 장애인 복지 동향과 개정된 정책을 파악해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원종 사무처장이 시·군 민원상담센터의 역할 및 비전을 제시했으며 박춘배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사례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다음으로 실무자 간의 의사소

통과 정보 교류를 위해 권역별로 시·군 민원상담센터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동향 및 개정사항, 구체적인 사례관리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민원상담센터는 하반기에도 31개 시·군 민원상담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술과 실습’, ‘소진(Burn out)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 등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지장협-정신건강교육개발원 업무협약 장애인 대상 정신건강 치유 본격 진행



▲ 세종지장협과 정신건강교육개발원이 ‘지역 장애인 정신건강 치유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치유교육이 진행된다. 지난 3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세종지장협)와 정신건강교육개발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교육개발원은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잡념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브레인 디톡스 치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장애인이 정신건강 치유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지장협 김경철 협회장은 “장애인 및 가족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건강교육개발원 김흥대 원장은 “이번 정신건강 치유교육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교육개발원은 브레인 디톡스 치유교육을 통해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을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트라우마 전문가 단체다.

“소외된 이웃 돕고 싶어요” 홍천군지회 이병길 부지회장, 장학금 300만원 기탁



▲ 홍천군지회 이병길 부지회장이 홍천군무궁화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 이병길 부지회장이 홍천군무궁화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병길 부지회장은 3월 16일 노승락 홍천군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장애와 희귀난치성질환인 혈우병으로 학업을 일찍 접어야 했던 그는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때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처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 부지회장은 지역에서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이웃을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매주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을 찾아다니며 말벗이 되고, 타 지역 병원까지 동행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눴다.

그뿐 아니라 매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중 절반은 기부하고 남은 돈은 조금씩 모아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노트북, 컴퓨터 등을 후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봉사활동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며 “그동안 받은 것을 나누며 살 뿐”이라고 담담하게 봉사의 소신을 밝혔다. 또 “남은 생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외롭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생생체험기

지장협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2017년 종사자 선진지 견학 “도쿄에서 직업재활시설 벤치마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의회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도쿄로 '2017년 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일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취업계속지원 A형(근로사업장)과 취업계속지원 B형(직업적응훈련시설)으로 나뉜다.

먼저 미나토장애인복지사업단에 방문했다. 이곳은 취업계속지원 A형에 속하는 시설로 미나토구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거나 외부 취업활동인 무직자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돕고 있었다.

차집, 화단 관리, 베이커리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매출에는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

장애인에게는 동경도 기준 최



▲ 지장협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가 일본 도쿄로 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저임금 지급 932엔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직업적 서비스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이 있는 휴먼프라자에는 원룸형 아파트를 함께 제공했다. 현재 장애인 전여명이 입주해서 살고 있다.

집 안에는 동작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 24시간 동안 움직

임이 없는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생활을 보장하면서 안전 관리를 함께 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다음 날엔 신주쿠구립장애자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취업계속지원 B형에 속하는 이 시설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곳의 생산품은 봉투와 직조 공예품

인데 생산 속도가 느렸지만 장애인들은 최선을 다해 일했다.

훈련수당은 월 3천엔인데 생산수익이 아닌 보조금이 재원이었다. 화단 정리 등의 추가 업무를 하면 월 5천엔에서 1만엔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같은 건물에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시각장애인 마사지숍, 단기보호시설, 여가실 등이 함께 있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의 시설이 무조건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과 생활을 별도로 보지 않는 원스톱서비스, 개별 특성을 모두 인정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배울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장애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이 우리보다 선진화된 모습이었다.



▶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박세향 원장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정기총회 개최... 지역 장애인 복지증진 다짐 장애가정 학생 위해 일당장학회 장학금 전달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대구지장협)가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합심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3월 24일 덕영치과병원 빌딩 6층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정우선 부회장, 구·군지회장 및 부지회장, 감사, 참관인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 대구지장협이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 장애인 복지증진을 다짐했다.

병상에 있는 김창환 협회장을 대신해 총회를 이끈 정우선 부회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며 “2017년에도 지역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대구지장협은 재단법인 일당장학회(이사장 양재욱)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어려운 장애가정 학생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달성군지회 장애인 이동지원 ‘달림콜’ 시범운영 돌입 “중증장애인 이동 적극 지원할 것”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이하 달성군지회)가 중증장애인이동지원센터 ‘달림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3월 21일 달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장애인단체장 등 내빈을 포함한 지역 장애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달림콜’이라는 이름엔 지역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해 어디든 달려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달성군지회는 지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리프트카 장착차량 2대를 이용해 공휴

▶ 달성군지회가 달림콜 발대식을 하고 시범운영에 나섰다.

일 및 주말을 제외한 주 5일씩 달성군 전 지역을 운영한다.

인사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주경철

울산 남구지회장 정유진

울산 동구지회장 제성일

울산 북구지회장 손순호

울산 울주군지회회장 홍도식

울산 중구지회장 신옥자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단양군지회장 전홍찬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 관장 최재천

OCI 직원들, 봄을 여는 ‘벽화봉사’

서울북부장복 계단벽 화사하게 새 단장



종합화학회사 OCI(사장 이우현) 직원들이 봄맞이 벽화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벽화봉사활동에는 OCI 직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월 22일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을 찾아 노후화된 계단벽을 화사하게 채색했다.

벽화봉사에 처음 참여한 OCI 직원들은 예쁘게 채색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색을 덧칠하는 등 세심하게 붓질을 했다. 장시

▲ OCI 직원들이 북부장복에서 벽화봉사 활동을 벌였다.

간 서서 힘든 작업을 진행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벽화봉사에 참여한 OCI 김연준 부장(RE사업기획팀)은 “벽화봉사에는 처음 참여했다”며 “조금 힘들었지만 복지관의 새로운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탬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OCI는 벽화봉사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OCI 측은 적극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김천장복, 장애인 대상 ‘자전거 교실’ 개강

김천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실’이 문을 열었다. 김천시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은 3월 20일 이용고객의 심신단련을 위해 ‘자전거교실’을 개강했다.

복지관 옆 강변산책로에서 열린 첫 수업에는 지역 장애인 10명이 참여했다. 교육 담당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시작했다. 1시간 동안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산책로를 달려보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기초부터 자세히 교육받고 자전거를 타보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터득

해 김천의 모든 자전거 도로를 달려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전거 교실은 3~6월, 9~11월까지 매주 1회, 1시간씩 진행된다. 각 주차별 ‘자전거의 구조와 역할 알아보기’, ‘페달 돌리며 출발 자세 익히기’ 등 장애인의 신체 발달 수준에 맞춰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 김천장복이 장애인 대상 ‘자전거 교실’을 개강하고 교육을 시작했다.

장애자녀 부모 ‘자조모임’ 활발

달구벌복지관 “모임 통해 성숙한 부모 역할 기대”



▲ 달구벌복지관이 장애자녀 부모의 독서자조모임을 개설했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서준기)은 장애자녀 부모의 자조모임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먼저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독서자조모임은 독서 후 의견 나누기, 올바른 장애자녀 양육과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시간

으로 장애자녀 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한국무용자조모임도 개설했다. 한국무용에 관심 있는 장애자녀 부모들이 함께 무용을 배우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복지관은 장애자녀

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복지관 측은 “장애자녀 부모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논의하며 성숙한 부모 역할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복지관 개관 축하해요” 진도군지회, 특미 600kg 기증



▲ 진도군지회 이운갑 지회장이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에 쌀을 기증했다.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이하 진도군지회)가 대전 동구아름다운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특미 600kg을 기증했다.

진도군지회 이운갑 지회장은 4월 10일 동구아름다운복지관으로 특미 15kg 40포를 발송했다. 이 지회장은 “복

지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장벽 없는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은 오는 20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 쌀은 복지관의 개관 기념 행사에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무장애 공간 실현’ 앞당긴다

서울시 편의시설 촉진단 간담회 개최 … 무장애 공간 확대 등 논의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이하 서울촉진단)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무장애 공간 확대를 논의했다.

지난 3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손영호 서울촉진단장을 비롯한 촉진단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 편의

시설 현황과 편의증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손영호 단장은 “촉진단원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꾸준히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온 덕분에 상당히 개선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무장애 공간 확대를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뜻을 함께 하며 무장애 공간 실현을 앞당

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촉진단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더욱 철저히 실행하고 ‘서울시 살피미단’의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편의시설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촉진단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25명이 활동 중이며 편의시설 설치촉진과 유지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 서울시 편의시설 촉진단이 간담회를 열고 무장애 공간 실현의 포부를 밝혔다.

“여행으로 활력 얻으세요”

유성장복, 지역 장애인과 ‘힐링나들이’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병규, 이하 유성장복)이 봄맞이 힐링나들이를 진행했다.

유성장복에서는 3월 24일 장애인으로 인해 평소 여행을 하기 어려운 지역 장애인 32명과 함께 전북 부안 일대를 다녀왔다.

먼저 내소사에 들른 일행은

천왕문에 이르기까지 길에 이어진 전나무 숲길을 산책했다.

이어서 채석강으로 옮겨 변산반도 서쪽에 있는 해식절벽과 탁 트인 바다 전경을 감상했다.

점심으로는 젓갈 정식을 먹으며 서로 나들이의 즐거움을 나눴다.

유성장복 담당자는 “나들이



▲ 유성장복이 지역 장애인들과 힐링나들이를 진행했다.

를 다녀오는 장애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며 “이번 여행으로 활력을

얻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나들이는 KB국민은행 대전 스마트고객 상담부

에서 100만원을 후원받아 진행됐다.

영천장복, 개관 13주년 기념행사 펼쳐

지역 복지 관련 토론회와 무료급식 등 진행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영천장복, 관장 이제근)이 개관 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6일 영천장복은 이

◀ 영천장복이 개관 13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용고객과 복지관 직원, 지역 주민이 모인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고 13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

영천장복은 이날 영천 지역 복지서비스 발전과 지역 내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했다.

또 지역 장애인 150여명에게 무료급식 및 기념품도 지급했다.

그뿐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

및 인근 상가에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직원 및 자원 봉사자들이 떡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직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 직원을 선정해 특별 휴가권을 지급했다.

한편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이만희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왔으며 전종천 시의원이 참석해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휠체어컬링클럽 롤링스톤 신규선수 모집

선수등록 및 훈련, 대회참가 등 지원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춘희, 이하 의정부장복)이 휠체어컬링클럽 롤링스톤의 신규선수를 모집한다.

대상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성인 지체장애인(1~2급)으로 휠체어컬링의 규정상 독립적인 기립 및 보행이 불가해야 선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남녀 2명으로 연중 지원 가능하다. 신규선수로 선정된 장애인은 정식 선수

등록, 훈련, 대회참가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훈련 장소는 의정부장복과 태릉컬링장 및 이천장애인체육훈련원 컬링장을 이용한다. 기타 문의는 의정부장복 스포츠문화팀 전영호(031-850-5360) 앞으로 문의하면 된다.

※ 휠체어컬링이란?

장애인 동계스포츠 종목으로

패럴림픽 정식종목이다. 혼성 4명이 한 팀이 되어 경기하는 스포츠로 얼음 위의 체스라고 불릴 만큼 작전과 두뇌 싸움이 필요하다. 장애인 선수는 보조스틱(큐)을 이용해 스톤을 투구하며 리드, 세컨, 서드, 스킵 순서로 포지션을 나눠 경기를 진행한다. 컬링 경기에 필요한 정식 규격을 갖춘 경기장에서 총 8엔드가 펼쳐진다.

복지용구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고시 개정

2개 제품 신규 추가, 50개 제품 가격 조정

정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을 내용으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2개 품목 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50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2개 품목 1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했다.

■ 욕창예방 방식

| 연번 | 업체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급여비용 (구입가/원) |
|----|-------------|--------------------------|--------------|-----------------|
| 1 | 남양전자기공 | CNR | H12030029001 | 183,000 |
| 2 | 동양라바 | DY8870 | H12031035101 | 194,000 |
| 3 | 동양라바 | DY9970 | H12031035102 | 194,000 |
| 4 | 미키코리아 | MK-ASC-6G | H12030043102 | 183,000 |
| 5 | 미키코리아 | MK-ASC-5B | H12030043103 | 183,000 |
| 6 | 솔고바이오메디칼 | SC-DUC-60 | H12030098001 | 183,000 |
| 7 | 셀테크 | SMC-608-1 | H12030037002 | 194,000 |
| 8 | 셀테크 | SM-DUB-004 | H12030037101 | 194,000 |
| 9 | 아시아엠이 | ABM-101 | H12030060001 | 183,000 |
| 10 | 영원메디칼 | Forever Cushion | H12030030002 | 183,000 |
| 11 | 영원메디칼 | Forever Cushion 4040 | H12030030003 | 183,000 |
| 12 | 영원메디칼 | FOREVER CUSHION 4044 | H12030030004 | 183,000 |
| 13 | 영원메디칼 | Silicon Air Cushion-4040 | H12030030101 | 183,000 |
| 14 | 영원메디칼 | Forever Cushion 4040S | H12030030102 | 194,000 |
| 16 | 영화의료기 | YH-CR01 | H12030031003 | 183,000 |
| 17 | 영화의료기 | YH-CR02 | H12030031004 | 183,000 |
| 18 | 영화의료기 | YH-CG1 | H12030031101 | 183,000 |
| 20 | 클리어뷰헬스케어 | Air Lite-NAL1616AL | H12030027002 | 165,000 |
| 22 | 클리어뷰헬스케어 | 1R98-06(CR) | H12030027101 | 183,000 |
| 23 | 클리어뷰헬스케어 | 2R99-06(CB) | H12030027102 | 183,000 |
| 25 | 포에버헬스케어 | Glory-7 | H12030130104 | 183,000 |
| 26 | ES 바이오메디칼 | ES8970 | H12030122001 | 194,000 |
| 27 | Forever헬스케어 | Glory-4 | H12030130003 | 183,000 |
| 28 | Forever헬스케어 | Glory-2 | H12031019101 | 183,000 |
| 29 | Forever헬스케어 | Glory-3 | H12031019102 | 183,000 |

■ 간이변기

| 연번 | 업체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급여비용 (구입가/원) |
|----|---------|-----------|--------------|-----------------|
| 1 | 보필 | BFTL4 | T03060025101 | 13,500 |
| 2 | 보필 | BFTL5 | T03060025102 | 14,300 |
| 3 | 보필 | BFTL6 | T03060025103 | 14,500 |
| 4 | 아시아엠이 | ABP101 | T03060060001 | 16,500 |
| 5 | 아시아엠이 | ABP-105 | T03060060101 | 14,300 |
| 6 | 아시아엠이 | ABP-106 | T03060060102 | 14,500 |
| 7 | 평화양행 | PHC-02 | T03060082001 | 13,500 |
| 8 | 평화양행 | PHC-01F | T03060082003 | 9,000 |
| 9 | 현대의료산업사 | HD-B-001 | T03060058001 | 13,500 |
| 10 | 현대의료산업사 | HD-UM-001 | T03060058002 | 9,000 |
| 11 | 현대의료산업사 | HD-UW-001 | T03060058003 | 9,000 |

■ 목욕의자

| 연번 | 업체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급여비용 (구입가/원) |
|----|-------------|-------------|--------------|-----------------|
| 21 | 케어맥스코리아 | SCU01 | B03180088603 | 176,000 |
| 26 | 파나소닉이메스신동아 | PN-L41501DK | B03180081601 | 184,000 |
| 28 | Forever헬스케어 | 3607 | B03181019601 | 98,800 |

■ 성인용 보행기

| 연번 | 업체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급여비용 (구입가/원) |
|----|-------------|---------|--------------|-----------------|
| 40 | 클리어뷰헬스케어 | RA60 | M06060027601 | 200,000 |
| 41 | 클리어뷰헬스케어 | SV-1000 | M06090027601 | 161,000 |
| 46 | Forever헬스케어 | 9283 | M06060130503 | 136,000 |
| 48 | Forever헬스케어 | 9223 | M06061019601 | 148,000 |

■ 안전 손잡이

| 연번 | 업체명 | 제품명 | 제품코드 | 급여비용 (구입가/원) |
|----|-------|----------|--------------|-----------------|
| 1 | 대구정공 | DGP-0001 | F18030059001 | 127,000 |
| 24 | 아시아엠이 | ASH-101 | F18030060001 | 135,000 |
| 42 | 엠씨텍 | MSH-102 | F18030034002 | 161,000 |
| 60 | 유광정밀 | YGM03 | F18030045103 | 128,000 |
| 75 | 해피웍 | HW-01 | F18031043101 | 134,000 |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초록여행

www.greentrip.kr

휠체어 때문에 여행이 불편하셨나요?
걱정마세요 **초록여행**이 있잖아요!



그 어떤 여행보다
스토리가 있는 초록여행

여가, 훌쩍 떠날 수 없던 사람들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인 여행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초록여행의 다양한 자원서비스를 www.greentrip.kr에서 만나세요.

등록장애인이시면 누구나
서울, 성남, 부산, 광주, 대전에서
무료로 이용하세요!!

차량지원

휠체어 수납가능한
차량 무상렌트

유류지원

유류비 부담없는
가벼운 주머니여행

기사지원

운전면허가 없는 분을
위한 차량기사

경비지원

차량, 유류, 기사
여행경비까지!

장애인여행의 동반자 **초록여행**

상담전화

1670-4943



▲ 지난해 개최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출발 모습.

세계 정상급 마라토너 출전 예열 마쳐

19개국 정상급 선수들 출격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정상급 마라토너들의 질주가 시작된다.

4월 29일 열리는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릴 남짓 남았다. 국제장애인올림픽 육상위원회 공인대회인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우수한 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유명하다.

올해는 6대륙 19개국의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국 중 아시아권은 태국,

일본, 한국, 중국 등 4개국이 출전한다. 유럽은 영국,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프랑스 등 7개국이며 북미는 미국, 캐나다로 2개국이다. 남미는 코스타리카, 오세아니아는 호주, 아프리카의 경우 가나, 짐바브웨, 카메룬 등 3개국이 출전해 총 19개국 선수들이 자국에서 예열을 마친 상태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2013년에 스위스의 마르셀 허그, 일본의 호키노우에 코타

선수가 1시간 20분 52초의 기록을 세워 38초 차이로 세계기록에 근접한 바 있다. 두 선수가 3년 만에 다시 한번 승부를 펼치게 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대회 1위를 차지한 태국의 타나 라왓 선수와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도쿄마라톤대회 1위를 차지한 일본의 와타나베 소 선수의 경기 또한 볼 만하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리우패럴림픽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차세대 리더로 눈도장을 찍은 김규대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또 우리나라 육상

간판스타 홍석만 선수는 대한민국 마라톤 신기록에 도전한다.

그밖에 만 16세 꿈나무 박윤재, 김현구, 윤윤호, 정상일, 정재석 등 신인선수를 비롯한 국내 선수 20명도 총출동한다.

휠체어마라톤은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두 개가 달린 경주용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밀어 달리는 스포츠다. 최상위권 선수들의 속력은 평지 20~30km/h, 내리막 40km~50km/h로 달리며, 1시간 20분대의 기록으로 마라톤(42.195km)을 완주한다.

휠체어마라톤은 0.01초 차이

로 승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다. 속도 조절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마시는 지점이 없다. 각자 휠체어에 물통을 부착하고, 안전을 위해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편 핸드사이클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의 협력으로 지난해에 이어 35명이 참가한다.

비록 핸드사이클 공인대회는 아니나 선수들은 88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현장의 감격을 떠올리며 도심을 달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봉주, 심권호, 어벤져스 축구단 등 함께 달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톱클래스 선수들의 휠체어 레이스 외에도 5km 경쟁 휠체어 부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5km 어울림 부문도 열린다.

5km 경쟁 부문은 전국의 생활체육 장애인 선수 300여명이 잠실 일대를 달리며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5km 어울림 부문은 장애인과 가족, 함께하고 싶은 모든 시민이 참가 가능한 종목으로 현재 2천 5백여명이 참가신청을 마쳤다.

또 이번 대회에는 올림픽메달

리스트 마라토너 이봉주, 전 레슬링 국가대표 심권호, 어벤져스 연예인 축구단, 2016 제25회 슈퍼모델 선발대회 대상 수상자인 최유솔을 비롯한 하수진, 홍주희가 함께 달린다.

이번 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기관장 및 실무책임자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인 대회운영을 점검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회 개요>

대 회 명 :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출 발 식 : 2017년 4월 29일(토) 07:40(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남문)

시 상 식 : 2017년 4월 29일(토) 12:00(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주 최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주 관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후 원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약사회, KBS

재정후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협 찬 : 신한금융그룹

협 력 :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주)스포츠와 사람들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식음료 : 포카리스웨트

※ KBS 방송 : 2017년 5월 2일(화) 13:55 예정



▲ 지난해 풀마라톤 시상식.



▲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5km 어울림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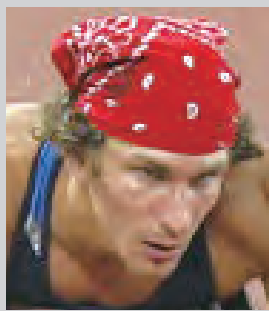
2017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주요 선수 프로필



허그, 마르셀(Hug, Marcel)
2016 세계랭킹 T54 1위
최고기록 1:20:52
2016 리우패럴림픽 1위
2013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신기록수립



타나, 라왓(Tana, Rawat)
2016 세계랭킹 T54 4위
최고기록 1:20:52
2016 리우패럴림픽 13위
2016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우승자



조지, 조슈아(George, Joshua)
2016 세계랭킹 T53 6위
최고기록 1:22:50
2008 베이징패럴림픽 100m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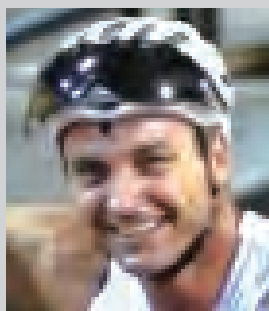
호키노우에, 코타(Hokinoue, Kota)
2016 세계랭킹 T54 8위
최고기록 1:20:52
2016 리우패럴림픽 7위



김규대(Kim, Gyudae)
2016 세계랭킹 T54 21위
최고기록 1:30:00
2016 리우패럴림픽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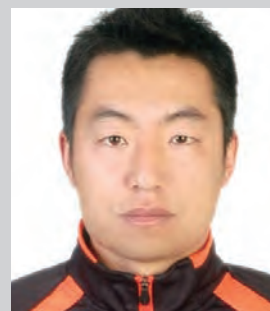
모나한, 패트릭(Monahan, Patrick)
2016 세계랭킹 T53 3위
최고기록 1:46:47
2016 리우패럴림픽 16위



페어뱅크, 피에르(Fairbank, Pierre)
2016 세계랭킹 T53 4위
최고기록 1:28:59
2016 리우패럴림픽 9위



홍석만(Hong, Sukman)
2016 세계랭킹 T54 19위
최고기록 1:29:13
2009/2011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 한국신기록 수립



리우, 첸밍(Liu, Chengming)
2016 세계랭킹 T54 22위
최고기록 1:30:09
2016 리우패럴림픽 4위



캐시디, 조시(Cassidy, Josh)
2016 세계랭킹 T54 25위
최고기록 1:18:25
2016 리우패럴림픽 12위



와타나베, 소(Watanabe, Sho)
2016 세계랭킹 T54 30위
최고기록 1:18:50
2017 도쿄마라톤 1위



발데, 알하사네(Balde, Alhassane)
최고기록 1:37:39
2013 독일 400m 챔피언



정동호(Chung, Dongho)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제주 동메달
최고기록 1:37:13



마, 징(Ma, Jing)
2016 세계랭킹 T54 15위
최고기록 1:51:48
2016 리우패럴림픽 11위



도스, 크리스티(Dawes, Christie)
2016 세계랭킹 T54 25위
최고기록 1:42:59
2016 리우패럴림픽 9위



영화이야기

부당한 현실 고발... 영화 <지렁이> 개봉

장애인 아버지, 학교 폭력 희생양 딸의 진실 규명 분투



뇌성마비 장애인이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사회고발 영화가 개봉한다.

오는 4월 20일 개봉하는 영화 <지렁이>는 과거 발생한 대표적인 청소년 성폭력 피해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제작진은 실제 피해 사례 24건을 모티브로 시나리오를 집필했으며 1500명에 달하는 오디션 지원자 중 가해, 피해, 방관 학생 등 주요 출연진 15명을 선발했다.

연출은 윤학렬 감독이 맡았으며 주연으로 아버지 원술 역의 김정균, 딸 자야 역의 오예설 이외에 이계인, 이한휘, 이응경, 최철호 등의 중견 연기가 출연한다.

영화는 뇌성마비 아버지가 외

동딸을 키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딸이 성악에 재능이 있어 예고에 진학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급기야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이를 교육부에 진정하지만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며 구제받지 못한다. 결국 성폭력에 원조교제까지 당하며 자존감이 파괴된 딸은 그만 자살하고 만다. 6개월 뒤 사망한 딸의 일기장을 받아든 아버지는 진실 규명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가해 부모들까지 찾아가지만 아무도 협조하지 않는다. 힘없는 장애인 아버지는 절규하며 복수를 다짐한다.

뇌성마비 장애인 아버지 '원술'을 연기한 김정균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시사회에서 "딸 가진 아빠로서 불안한 사회에

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영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실태에 관심 갖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야'역을 맡은 오예설은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너무 화가 나고 분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열심히 연기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 윤학렬 감독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는 수많은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출했다"며 "영화를 통해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영화 <지렁이> 포스터. ©미디어파크

아름다운 선율에 마음도 힐링 충남교향악단, 태안장복서 음악회 열어



▲ 충남교향악단이 태안군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국내 최초의 도립교향악단인 충남교향악단이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태안장복)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9일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지역 장애인 100여명이 모였다. 음악회는 먼저 폴 매카트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연주로 시작했고 이어서 재즈, 팝송, 국민가요 등 8곡을 들려줬다.

충남교향악단 측은 연주 중간 악기와 곡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으며

관람객들은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한 관객은 "악기와 곡에 대한 설명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며 연주를 들려줘 즐거웠다"는 소감을 말했다.

충남교향악단은 현재 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다니며 음악회를 제공하고 있다.

태안장복 이종만 관장은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열어준 충남교향악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계 장애인 노르딕스키 월드컵

신의현, 금·은·동메달 모두 획득

‘평창 패럴림픽’ 금메달 노린다

평창 패럴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신의현(37·창성건설)이 전 초전으로 열린 2017 세계 장애인 노르딕스키 월드컵에서 금·은·동메달을 모두 획득했다.

신의현은 대회 첫날이었던 지난 3월 10일 바이애슬론 스프린트(7.5km) 남자 좌식에서 은메달을 따내 상쾌한 출발을 알렸다.

이어서 11일 크로스컨트리 남

자 좌식 장거리(15km)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또 15일 크로스컨트리 남자 좌식 중거리(7.5km)에서 3위를 차지해 삼색의 메달을 모두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모두 따내면서 신의현의 다음 목표는 2018 평창 패럴림픽으로 향하게 됐다.

신의현은 경기 후 "이번 대회를 통해 제 부족한 점을 알게

됐지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며 "남은 기간 열심히 훈련해 평창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대회를 1년여 앞두고 사전 점검을 위해 대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테스트이벤트로 치러졌다.



▲ 신의현이 세계 장애인 노르딕스키 월드컵에서 금·은·동메달을 모두 획득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나는 행복하다” 전신마비 장애인 응답

생각 읽는 컴퓨터로 루게릭병 환자와 소통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락트인 증후군은 의식은 있지만 전신마비로 인해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감금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 바이오 신경공학 연구팀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전신마비 장애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들은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도 생각을 전달해 의사소통 가능성을 기대케 했다.

연구팀은 산소포화도와 뇌파의 활동을 측정하는 뇌전도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만들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장치가 락트인 증후군을 겪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는 신경계통이 완전히 파괴된 루게릭병 장애인 4명을 실험대상으로 했다.

연구진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개인적 질문이나 ‘네’, ‘아니

오’로 답해야 하는 열린 질문을 했다.

참가자들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착용하는 동안 답을 생각했고, 비침습적 장치는 혈중 산소 포화도의 변화를 측

정해 반응을 감지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의 대답이 약 70% 정확했으며 4명 모두 ‘당신은 행복한가’라는 반복된 질문에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

이 몸은 불편하지만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이끈 빌바우머 교수는 “나의 기존 이론이 ‘락트인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였는데 이것이 뒤집혔다”며 “모든 참가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 많은 전신마비 장애인에게 이 연구를 반복 실험한다면 운동 신경 세포와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는 불치병을 겪는 사람들도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빌바우머 교수는 이번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앞으로 루게릭병, 뇌졸중, 척수부상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루게릭병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참가자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보였다. ©데일리메일

자폐아 교육용 로봇 ‘제노’ 개발

자폐아동과 자발적인 상호 작용 유도

자폐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로봇이 개발됐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과 유럽의 협력기관이 자폐아동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로봇 ‘제노(Zeno)’를 내놓았다.

연구자들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 오디오, 비주얼, 얼굴 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했다.

특히 상호작용하는 아이들의 소리와 시각 신호를 감지하고 해독할 수 있도록 개발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자들은 현재 세르비아와 영국에서 이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이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로봇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래밍 된 로봇은 모든 상호작용에서 동일한 표정과 제스처를 표시한다.

이러한 일관성은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들이 감정을 표현

하는 표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로봇은 인간과 달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자폐를 가진 아이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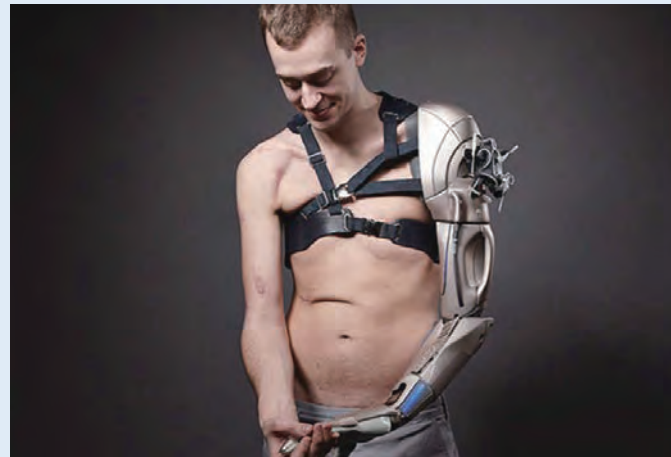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자 판틱 교수는 “많은 자폐인이 감정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해 상호작용을 돕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자폐아 교육용 로봇 ‘제노’를 개발했다. ©Cees Elzenga

예술적인 첨단 로봇 팔 탄생

스마트워치, 드론 부착 등 최신 기능 화제



▲ 게이머 제임스 영이 첨단 기능을 갖춘 로봇 팔을 착용하고 있다. ©얼터너티브 팔다리 프로젝트

영국 런던에서 예술적인 첨단 로봇 팔이 탄생했다.

의수족 회사인 ‘얼터너티브 팔다리 프로젝트’는 최근 페이스북에 첨단 로봇 팔을 공개하며 화제를 낳았다.

이 회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게이머 제임스 영(26)이 로봇 팔을 착용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임스 영은 2012년 철로에 떨어져 팔과 다리를 하나씩 잃었다. 좌절을 거듭하던 그는 이번에 큰 선물을 얻었다. 실제 팔을 대신할 로봇 팔을 얻게 된 것이다.

팔의 가격은 8500만원 정도이며 각종 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어두운 곳에서 쓰는 라이트, 충전을 위한 USB 포트, 스마트워치 그리고 어깨 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드론도 있다.

이 로봇 팔은 어깨 근육 움직임으로 통제하며 작은 동전을 집을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정교하다.

얼터너티브 팔다리 프로젝트 측은 “머지않아 장애인들이 첨단 로봇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상반기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 권역별 보수교육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이승협 대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중앙센터장 김광환, 이하 편의센터)는 2016년 3월 28일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편의센터는 임직원이 편의시설 전문가로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편의센터는 지난 3월 8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상반기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호남권역(제주센터 주관), 충청권역(대전센터 주관), 수도권역(강원센터 주관), 영남권역(부산센터 주관)으로 나눠 전체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3월 8~9일 열린 1회차 교육은 제주

센터 주관으로 제주를 포함한 호남권역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진행했다. 2회차는 3월 21~22일 대전센터 주관으로 충청권역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렸으며 3회차는 3월 23~24일 강원센터 주관으로 강원을 포함한 수도권역 임직원을 대상으로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4회차는 3월 29~30일 부산센터 주관으로 영남권역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산 아쿠아펠리스에서 진행했다.

먼저 1회차 호남권역 보수교육에서는 중앙센터장의 특강을 대신해 제주센터 부형종 센터장이 편의센터 임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부형종 센터장은 임직원들에게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2회차 충청권역, 3회차 수도권역, 4회차 영남권역 보수교육에서는 김광환 중앙센터장이 특강을 통해 편의센터 설립 과정과 설립 이후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김광환 센터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제도가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철저히 업무에 임해 발전적인 선례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다음으로 편의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업무

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련 사례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 직원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센터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이 진행했으며 5분 스피치 형식으로 이어졌다.

그밖에 감면 하이패스 제공회사인 ‘휴먼케어(대표 한치영)’에서 2016년 하이패스 활성화 유공 협회와 지회를 선정해 발표하고 격려했다. 광역 협회 부문은 광주지장협이 지회 부문은 경기 하남시지회가 선정돼 감사패와 상품권을 전해 받았다.

끝으로 이번 보수교육으로 편의센터 임직원이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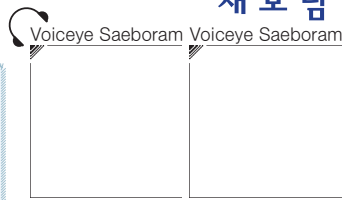
▲ 영남권역 보수교육 기념촬영.



▲ 김광환 중앙센터장의 특강.



▲ 전 직원이 돌아가며 업무 관련 사례와 애로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교육과정 안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신성철 과장

최근 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타이어 노예, 시설 거주인 신체 학대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런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축사 강제노역 사건 등 장애인 학대 범죄 가해자들은 “딱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을 거둬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 지역 사회의 묵인과 무관심 속에 이어져 온 장애인 학대의 고리를 끊으려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2016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의 직원까지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을 받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신규강사 양성 사업을 실시하며 인권 증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는 경기, 전남, 경북지역에서 파견교육을 실시했으며 2018년까지 3년간 지속사업으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지장협은 충남지역까지 추가해서 4개 권역에서 인식개선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지장협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소개하고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교육기관을 안내한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장애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 2017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모집 및 양성교육과정 운영

| 지역(권역) | 모집대상 | 모집인원 | 모집기간 |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 | 주관 및 문의 |
|-----------|-------------------------------|------|---------|---------------------------------------|----------------------------|
| 경기도(수도권) |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 (경험자 우대) | 30명 | 모집완료 | ○수료기준 -출석율 80%이상 -강의시연평가 70점 이상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031-247-7721) |
| 전라남도(호남권) | | 20명 | 3월말~4월초 | ○교육생 지원 -참가비 및 식비 무료 |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061-287-4990) |
| 경상북도(영남권) | | 20명 | 3월말~4월초 | -파견교육 시 강사비 지급 (충청남도 제외) |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054-842-9330) |
| 충청남도(충청권) | | 20명 | 4월 중 | |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041-853-4907) |

- 2017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수요처 모집 및 파견교육 운영

| 신청기관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파견교육 내용 | 문의처 |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 일반회사 또는 지역주민 자치조직 등 | 4월~10월 | ○신청방법 교육신청기관은 일자, 인원, 내용에 대해 해당지역에 유선 문의 후 신청서 제출(팩스 등) ○파견교육 내용 신청기관의 교육대상자 연령과 신청내용을 고려해 적합한 강사를 파견해 교육 진행, 강사비 무료(충청남도 제외)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팩스 031-246-7721)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팩스 061-287-4993)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팩스 054-842-9302)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팩스 041-853-4903)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안내

| 교육기관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문의처 |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edu.humanrights.go.kr) | 인권강사양성 | 장애 관련 전문가 및 시설 경력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 후 위원회 위촉 강사를 선발 | 02)2125-9896 |
| | 사이버교육 | 일반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과정으로, 사이버인권 교육과정 이수 인증이 되는 정기 강좌와 언제나 수강 가능한 열린 강좌로 구성된 무료 교육 과정 | 02)2125-9895 |
| | 인권특강 |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과정 | 02)2125-9894 |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인권강사교육 | 장애인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공익소송 등의 법률지원 개입방법과 각 대상에 맞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신규강사 양성교육, 인권강사 심화(역량강화)교육을 실시 | 02)2675-8153 |
| | 장애인권교육 | 유아,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장애인당사자, 복지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실시 | |
| 시·도별 장애인복지관 | 인식개선교육 |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해교육과 장애체험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유도 | 해당 시·도 장애인복지관 |

인터뷰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가요”



약 력

現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前 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시지부장
前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
제5·6대 성남시의회 의원
現 경기도장애인농구협회장
現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자문위원
前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부위원장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2년 성남시장 표창
2006년 경기도지사 표창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2009 전국 장애인복지를 빛낸 10대 인물 선정
2005~2009 경기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

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활동해 온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가 다시 한번 힘찬 발돋움을 시작했다. 지난 3월 제12대 회장으로 추대된 정기영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봤다.

Q. 제12대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들려주십시오.

A. 먼저 지난 6년간 부모회를 잘 이끌어 오신 노익상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지체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지적장애 2급의 장애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부모회 회장이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애환을 잘 알고 있기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Q. 부모회를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A. 장애인부모회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입니다. 발달장애뿐 아니라 청각, 지체, 시각 등 다양한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양육 및 재활정보를 교환하며 장애자녀가 사회인으로 정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모두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Q. 부모회와 인연을 맺으신 건 언제였는지요?

A. 발달장애인 딸 은지를 키우면서 부모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2007년 성남시장장애인부모회장직을 맡으면서 장애인부모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Q. 부모회 성남지부장, 경기도지회장,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장애인 및 가족 권익 증진에 기여해 오셨는데 회장 출마 결심을 한 계기는?

A. 지부장, 지회장을 거친 인사가 중앙회장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역 회장이던 때는 지역에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지회와 지부를 다녀보니 조직의 현주소를 깨달았습니다. 지방부모회에서 중앙회에 바라는 것은 재정 지원보다도 우선 관심이었던 것들요. 그래서 저는 전국 조직을 다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회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Q. 조직 강화와 정책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 들려주세요.

A. 전국 지방조직을 다니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부모회 운영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면서도 강력한 조직을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 학계, 법조계,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조직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며 정책적으로 앞서가는 부모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공약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황과 계획은?

A.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60여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요. 올해 「장애인복지법」30조2항에 가족지원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힘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곳이 부모회면 좋겠지만 운영법인이 어디든지 각 기초 시·군까지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우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입니다.

Q. 앞으로의 역점 사업은?

A. 현재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지역에 부모회 지회가 없습니다. 지회가 부재한 지역의 기초단위 조직을 세우고 회원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Q. 부모회 회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점은?

A. 부모회 회장의 역할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에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그것을 체

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선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장애인계에 바라는 점은?

A. 단체별 욕구가 각기 다르지만 연합단체가 분리돼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책과 행동을 한목소리로 모으고 분명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가족단체를 배제하는 장애인당사자 단체도 있는데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Q.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A. 장기적으로 장애 관련 정책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좀 더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Q.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A.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자’입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새보람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펼쳐지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2기 지회

새 리더들의 각오, 그리고 지회의 의미와 조직의 미래



김혁성 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지원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12기 지회가 시작됐다. 이번 지회장 직무교육은 지난 11기와는 다르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난 1월 11일부터 13일,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청풍레이크 호텔에서 진행됐다.

교육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지회장들에게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는 세계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경제와 무관하지 않은 복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12기 지회장들에게는 이번 3년이 특히 외롭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중앙회장은 또 “이번 직무교육을 수료했다고 하여 장애인 리더의 자질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격적인 직무교육은 이제부터라는 마음을 갖고 직무 중에도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생각의 변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 실용성 강화한 커리큘럼 돋보여

이번 지장협의 제12기 지회장 직무교육은 제11기보다 교육 일정이 하루 늘어난 2박3일로 커리큘럼이 추가되면서 내용도 다양해졌다. 교육 내용은 김광환 중앙회장과 이종성 사무총장의 특강 그리고 리더십 교육 등을 비롯해 고용장려금 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 길잡이, 장애인 편의시설 그리고 편의센터 운영관리, 효과적인 홍보방법,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및 업무매뉴얼,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지침 등 총 9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지회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강의가 대폭 늘어났고 김영란법, 홍보 방법 등 시대적 트렌드에 맞춘 과정들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내용도 다채로워졌다.

“제11기 교육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면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은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점이 돋보이네요. 그리고 유익한 과정이 새로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라고 서울협회 관악구지회 이대섭 지회장은 말했다. 시간이 늘어난 것

에 대해 일부 지회장들은 “너무 힘들고 지루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기에 비해 내용이 더 풍부하고 실용적인 면이 강화돼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 새로운 3년, 제12기 지회장들의 날 선 각오

교육에 참가한 신임 지회장들에게 향후 3년간 지회 운영에 대한 각오와 포부를 설문지 형식으로 물어보았다.

올해 지회장 4년 차인 서울협회 마포구지회 김동희 지회장은 “돈 없는 지역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과 인식개선에 힘쓰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의미 있고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여 자랑스러운 마포구지회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지회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올해로 지회장 3년차인 경기협회 김포시지회 이경규 지회장은 12기 지회운영계획으로 ‘장애인자립작업장 설치, 승마 재활케어센터 설치, 안정적 재정확립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또 10년이 넘는 지회 운영 경력을 가진 경남협회 창원시지회 박성호 지회장은 “후원금을 활용하여 자녀장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장애인단체도 이제 수혜의 대상에서 시혜를 베푸는 주체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며 “지회의 자립기반 확충을 통해 받는 만큼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복지단체를 만들겠다”면서 제12기 지회 운영에 대해 베테랑답게 한층 여유

있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제12기 지회장으로 선임된 충북협회 영동군지회 박흥식 지회장은 “정회원 수를 현재 553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금년 내로 설립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지회 최초로 총회를 개최하고 분회를 활성화하며, 보조금 증액을 통하여 활발한 지회 운영을 하겠다”는 패기를 보여줬다.

■ 전국 지장협 조직은 일심동체(一心同體)

지장협은 하나의 법인체 아래 전국 산하조직이 구성되어 어느 한 조직이 문제가 생기면 함께 영향을 받는 운명공동체다. 각 지역 조직 단위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세무서, 기타 수익사업 등 대외적으로 필요한 모든 법인서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라는 하나의 명의로 대표된다. 각 지회가 중앙회로부터 받아 사용한 문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협회와 중앙회가 함께 힘들어진다.

또한 하나의 지역 단위(지회, 시설, 작업장 포함)에서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될 경우 지장협 전 조직에 1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금의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한곳이라도 세금납부가 연체되면 중앙회에서는 단 한 건의 사업 계약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 모두는 지장협 전 조직이 싹싹처럼 서로 얹혀 공존 공생하는 한 몸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 초심을 잃지 말자

이제 제12기 전국 시·군·구지회장들이 새롭게 3년간의 여정에 뜻을 올렸다. 시작할 때 모두 새로운 각오로 성공적인 3년을 다짐한다. 그러나 여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3년을 길다 생각하고 중도에 이탈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르는데 괜챤 것지 하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지회를 운영하면서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변해야 할 것은 지회장 직무 역량과 지회 성장이다. 이것은 꾸준히 양(+)의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임기초에 계획했던 알토란같은 지회 운영 계획들과 클린(Clean) 지장협을 이루겠다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초심(初心)은 임기내내 변하지 말아야 한다.

이참에 “내게 주어진 3년은 그리 길지 않다. 아니 내가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직무를 시작해봄은 어떨까.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동안 촌음(寸陰)도 아껴 지회 발전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전력을 다하는 한편, 투명한 지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임기내내 변함없이 간직한다면 3년 후 그 과실의 맛은 결코 쓰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를 실천하는 지회장이 많아진다면 지장협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 보 란 제284호 2017년 4월 19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오창석, 이정희 디자인 / 이희진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애아동 학대피해”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 사이에서 소외돼… 사회적 지원체계 개선 시급

지난 3월 14일 충북 청주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계모가 9세 지적장애인 의붓딸을 밀어 욕조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계모는 딸이 다친 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고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방치했다. 결국 딸의 아버지가 퇴근해 발견한 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졌다. 학대받는 장애 아동은 해마다 늘어 2015년 4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75%는 친부모였고 피해 아동 10명 중 3명은 매일 학대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 사이에서 소외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아동복지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면서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최초로 아동학대 정의와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명시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016년에 발표했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이번 연구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장애아동은 아동복지와 장애인복지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국가는 학대, 폭력과 착취 등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인 장애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은 아동학대 지원체계 내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 33% 매일 학대 경험 학대판정 사후 조치 열악해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은 2013년 281명에서 2014년 427명, 2015년 46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를 집계한 수치로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부모 중 43%는 친부, 33%는 친모가 가해자로 나타났다.

가해자 절반 이상(57%)이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또 피해 아동의 33.4%(156명)는 ‘거의 매일’ 학대를 겪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병행하는 경우가 전체의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20.6%), 신체적 학대

2015년 기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학대현황 비교표

| | | 장애아동 | 비장애아동 | 전체 |
|------------------------|---------|----------------|--------------------|---------------------|
| 만18세 미만 아동 수 | | 72,583명 (0.8%) | 8,817,417명 (99.2%) | 8,890,000명 (100.0%) |
| 학대피해 장애아동 신고 수 | | 467명 (2.43%) | 18,737명 (97.6%) | 19,204명 (100%) |
|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수 대비 신고 비율 | | 0.6% | 0.2% | 0.2% |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 | 41.3% | 28.6% | 28.9% |
| 재신고율 | | 28.5% | 12.0% | 12.4% |
| 사례판정 | 아동학대 | 467명 (4%) | 11,240명 (96%) | 11,707명 |
| | 조기 지원사례 | 0.0% | 10.8% | 10.5% |
| | 일반사례 | 0.0% | 19.7% | 19.2% |
| 학대유형 | 성 | 4.9% | 3.6% | 3.7% |
| | 방임 | 20.6% | 17.1% | 17.2% |
| 학대 발생빈도 | 거의 매일 | 33.5% | 23.9% | 24.3% |
| | 원가정보호 | 62.7% | 65.1% | 65.0% |
| 피해 아동 최종조치 | 일시보호 | 14.1% | 4.7% | 4.6% |
| | 장기보호 | 14.8% | 8.0% | 8.3% |
| | 병원입원 | 3.0% | 0.4% | 0.5%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수집자료(2013~2015) ©한국장애인개발원

(18.6%), 정서적 학대(11.8%), 성 학대(4.9%) 등의 순서였다.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 재신고율도 높았다. 아동학대 전체 신고율은 2015년 12.4%로 나타났는데 장애아동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8.5%의 수치를 보였다. 또 비장애아동에 비해 병원 입원 비율도 높았다.

학대판정 사후 조치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피해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62.7%가 원가정에서 다시 보호받고 있었다. 친족 보호 4.3%, 가정 복귀 10.5%를 포함하면 약 80%가 원가족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학대판정 장애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돼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2015년 기준 467건 중 19명으로 전체의 0.04%에 불과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아동 쉼터 종사자들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을 지원할 종사자가 부족하고, 기존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장애이해 전문성이 떨어졌다. 장애아동을 지원할 치료비도 부족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아동학대 개선 방안은?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장애아동의 학대피해 및 지원체계 현황을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아동 학대 방지 및 지원 법률 마련 아동학대 관련법은 다수 존재하지만 장애아동 학대방지와 지원을 위한 법률은 사실상 없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학대를 금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형법에는 학대죄에 대한 형량만 존재한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는 학대를 금지하고 있을 뿐 학대 피해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대 피해자 발생 시 학대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법률로 지정돼야 한다.

◆학대피해 통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공식적으로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장애아동 구분통계를 명시하고 피해 아동 현황 보고서를 매년 추가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또 장애인 학대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적인 장애인 학

대 실태조사와 민관을 아우르는 공통 서식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시설 설립 향후 학대 운영할 쉼터를 우선 장애아동 전용 쉼터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쉼터는 특히 중증이거나 중복 장애아동이 입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개선 첫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지원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 장애아동 사례 관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참고문헌: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연구 보고서>, 서해정 외,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11

장애계 인사이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문제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적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이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그동안 양적·질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정책수립 초기에는 제도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전문가 중심의 재활접근 방법보다 현실적으로 용이한 정책 접근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재활접근 방법에 기초한 전달체계 모델로서 발전해 온 것이 장애인복지관이다.

1982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모델로서 최초로 설립된 이후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전달체계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한 축으로 그 중요도를 높여 왔고, 매년 양적으로 증가해 전국 220

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하고 주요 이슈인 사회서비스(바우처)와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분권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복지관 종사자들은 장애인복지의 정상화, 사회통합 이념이나 자립생활 패러다임 등을 토대로 한 재활·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내용은 진단판정과 자립지원 계획, 기능향상 및 사회심리 재활, 직업재활, 문화여가 등의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몇몇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형 재가복지서비스 시행 또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형태로 특화 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정책 패러다임이나 주변 환경, 복지서비스 내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내부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조직 문화가 만연하다. 이러한 조직 문화 개선 또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과제와 임무, 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복지서비스 욕구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녹록치 않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장애인복지

관은 복지서비스의 모든 영역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전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신청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방식으로 복지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소비자인 장애인들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신의 재활 방향과 욕구에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변화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독점적 서비스 제공권을 누려온 장애인복지관의 정체성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복지관은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다.

각종 장애인복지 인프라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법주의 확대 및 노력 장애인구 증가, 재정의 지방분권화 등 변화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각 변화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제근 관장



Quiz

01 제25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장소는?

02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는 3월 6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빈칸에 들어갈 단체 이름은?

03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요령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news@kappd.or.kr)

독자의견

〈새보람〉에는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무료 책배달 ‘책나라’ 제도 확대 기사를 보고 지체장애 5급인 저도 책을 무료로 배달받아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업 알선, 자격증 취득, 직무능력 프로그램,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강수봉

〈복지마당〉에 ‘정직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글은 현 시국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며 반성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남정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4월 29일
김흥빈

당첨자 부산 부산진구 강수봉
강원 강릉시 이남정
충북 진천군 장지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킷드래

http:// www.gabrielcenter.or.kr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선물·행사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천연비누세트,
답례품, OEM

원하시는 문구, 이미지 예쁘게 넣어드립니다.
믿고 쓸 수 있는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가브리엘천연비누 1구



가브리엘천연비누 3구



가브리엘천연비누 4구



답례품(주문제작)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라길 04-12
가브리엘작업장 Fax. 02.951.9708

필요한 제품 주문해 주세요!
Tel. 02.951.9707

복지마당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합시다!”

인격을 닦는다고 하거나 ‘인격 도야(陶冶)’라는 표현은 사람이 인격을 갖추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어서 그 성장 과정에서 착한 마음과 좋은 품성을 함양하도록 본을 보이고 습득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때문에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모든 공교육이 전인교육(全人教育)을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이상적인 교육 목표와는 동떨어진 경제논리와 얽히면서 단단히 꼬여있는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세계 최상이다. 자녀의 과외 교육이나 학원비 등 사교육 부담이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일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자녀의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어둘 수밖에 없다. 오직 경제논리에 따라 더

좋은 학벌을 갖추어 보다 많은 연봉을 거둘 수 있는 직업군으로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는 일념을 갖게 하는 풍조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 떠도는 ‘금 수저 훔 수저’와 같은 용어는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이러한 환경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계층의 자조적인 탄식을 담고 있다. 탐욕스러운 거대 자본이 거두어들이는 재산 증식을 바라보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 사회전반에 돈이 그 사람의 지위가 되고 평가 수단이 되는 풍조가 굳어지고 말았다. 이에 반하여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지 않으면 바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박탈감으로 마음을 가누기도 힘들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응축되면 흙과 암석이 용해(鎔解)되어 쌓이게 된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어느 순간 지표면을 뚫고 올라와 분출하게 되는 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된

다. 지금 이 사회에도 상실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울분이 가득하다. 그 표현이 촛불집회로 나타나고 태극기집회로 나타나고 있다. 어찌 보면 상반되는 주의 주장과 이념은 명분에 불과할 뿐, 이들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를 쏟아낼 분출구가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거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무력으로 세계를 제압하려한 군국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이념과 체제의 등장은 바로 상실감에 빠져 있던 계층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들 체제가 몰고 온 무지막지한 살상과 인권 유린의 역사가 자행되는 동안에는 그 어떠한 이성적인 충언과 설득도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주변 상황은 과거 역사의 기시

감처럼 주변 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사람 개개인의 마음속에도 이기심과 울분이 가득 차오르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이 사회가 내부문제의 갈등으로 폭발한다면 산산이 흩어져 날아가는 파편처럼 마침내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고 말 것이다. 이런 사태 이후에는 외부로부터 밀려드는 더 큰 재난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절박함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의 약점만을 잡아 비난하는 모습을 버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마음을 모아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남의 말을 좋게 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아량의 마음으로 사회를 치유해야 한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음을 믿는다. 좋은 말, 희망의 언어로 절망과 상실감을 몰아내고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를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올바른 인격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숙한 인격을 갖춘 시민들이 가꾸어 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시 시작할 것을 건의하면서 나 자신부터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리더스토리

“우리가 먼저 다가서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에 약속이어라 ~희망이어라~ 등불이어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협회가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설렘으로 가득 차고 심장의 뛰는 소리는 귓가에 울릴 정도로 벽찬 감동에 쌓여 흐트러진 마음에 다시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주곤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던 시점에서 나아가야 할 지표를 제시하고 용기를 불러 넣어주며 행동으로 실천토록 하는 재석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지체장애인협회도 2012년부터 새로운 변화를 고민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강력하게 우길 때였습니다. 우리 부산 장애인들이 독도에서 합동결혼식을 한다면 그 어떤 말보다 한국 장애인들의 국가관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선박 시간을 조정하고 독도 수비대의 협조로 독도선착장을 결혼식장으로 꾸미기로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길을 열어 주지 않아 울릉도 전망대에서 결혼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의 아픈 마음이 자극제가 되어 2013년에는 한국의 영산

백두산 천지에서 한국 전통합동혼례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방송국의 촬영을 금지한 장소인지라 문제를 풀어가며 성공적인 행사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시와 중국 연변자치정부가 행사장에서 MOU를 맺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로 한국장애인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 KBS 사랑의 가족을 촬영하는 PD는 “평생 촬영할 수 없는 것들도 촬영하게 되어 동행한 보람

만들 때에도 상상하는 개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본인의 부족한 점을 어디에선가 보충을 했었기에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해야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할 시간에 차라리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본다면 가장 빠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족함으로 안 되는 일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해결방법을 찾으

두려워 할 시간에 도전을!

이 있었다”며 “장애인단체 행사로는 엄청난 일을 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후 우리 협회는 2015년 전통합동혼례와 2016년 바다 위 합동결혼식 및 한마음대축제 등 큰 행사를 치러내며 긍지가 쌓여갔습니다.

저는 평소 공장 직원들(특히 신입 직원들)에게는 결코 해선 안 될 말이 있다고 교육을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직원은 많은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안 되는 일을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계를

만들 때에도 상상하는 개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본인의 부족한 점을 어디에선가 보충을 했었기에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해야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할 시간에 차라리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본다면 가장 빠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족함으로 안 되는 일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해결방법을 찾으

려 한다면 분명 어떤 일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어야지 그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포장된 행위나 행사는 자존심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일이지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한데 그런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의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등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가야지 자존심을 안 건드리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저희를 지켜보는 회원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가의 가사 내용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아직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제와 오늘도 변함이 없었구나!” 다행이라고 제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저는 내일도 협회가를 들을 때 가슴이 뛰는 느낌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김광표 협회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선거일공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8대 회장 선거의 선거일을
정관 제19조(총회)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제8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선거일 : 2017년 5월 31일

2. 선거권자

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대의원 구성)에 의한 대의원

3. 입후보 자격

①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후보 할 수 있다.

- 1) 선거공고일 현재 등재 이사
- 2) 학식·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 회장이 추천한 정회원
- 3) 이사회가 추천한 정회원
- 4) 정회원중에서 시·도협회장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중복추천은 불가)

② 정관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자
- 4)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7)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

4.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17년 5월 11일 ~ 5월 15일(5일간)

나. 등록신청서류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 등록)의 구비서류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회원증 사본 1부
4. 회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최근 3개월)
5. 등록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8. 범죄경력조회서 1부
9.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10.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11. 후보자 서약서 1부
12. 추천서 1부
1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및 중앙회장, 시·도협회장 사직확인서 1부.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다. 등록장소 : 제8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중앙회 사무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1호)

제8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